

# 불교정화운동은 자생적 정화의지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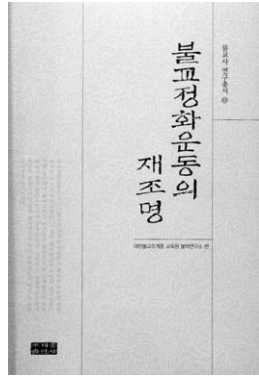
2006년 2월, 태고종이 발간한 <태고종사>는 불교계에 일대 회오리를 몰고 왔다. 현재의 태고종 창립과정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계종의 근간이 된 정화운동의 주역이던 스님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는 조계종의 반발이 강력히 제기됐던 것. <태고종사>는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촉발돼 대처승을 축출·정리했던 정화운동을 '비구승들이 종권탈취에 혈안이 돼 저지른 법난'이라는 식으로 서술했다. 이를 두고 조계종은 조계종에 대한 모욕이라며 분개했고, 당시 분란은 조계종에 대책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또다시 한국불교에 비구·대처의 난리가 일어나는 듯 했다. 당시 사태는 태고종단의 문제부분 수정으로 일단락됐다. 그 후 불교정화운동 연구에 매진했던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이 사태 후 2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학문적 차원에서 불교정화운동 재정리를 마치고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을 발간했다.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은 고영섭 교수(동국대), 김광식 교수(부천대) 등 불교사연구위원회에 참여했던 9인의 학자들이 1년간의 연구 활동을 결산한 것이다.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성찰로 불교정화운동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 연구실무 책임자인 원종 스님(교육

## 조계종 교육원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발간

원 불학연구소)은 발간사에서 "불교정화운동은 식민지 불교의 잔재 청산을 기함과 동시에 계율 수호와 청정 수행가풍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재현(경원대



조 지불과, 대처-태고 보우파리는 이분법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화운동이 종조문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정화운동을 지나면서 사찰 재산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는 사실도 김순미(한국고원대 대학원)씨의 '농지개혁

형성했다"고 적었다. 윤승용 연구위원(한국종교문화연구소)은 '불교정화공간과 사회복지'를 통해 불교정화운동 당시 불교사회복지 실태를 살폈다. 윤 위원은 "당시 보이는 불교사회복지활동은 일제강점기부터 유래된 것뿐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분규가 마무리된 1970년대까지 사회복지사업 등 대외 사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영섭 교수의 '불교정화의 이념과 방법', 김광식 교수의 '불교정화운동과 화동위원회', 김순석 수석연구원(한국국학진흥원)의 '이승만 정권의 불교정책', 이경순(한국철도대 강사)씨의 '근대 불교구술사 성과의 현황과 과제' 등 총 9편의 연구성과가 수록됐다.

조계종은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이 객관성·다양성을 갖고 접근한 책이라며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자의적·호교적 이해를 극복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조계종, 태고종이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 연구팀을 꾸려 공동결과물을 발표하지 않는 한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청화 스님의 "앞으로도 종단사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 그에 대한 학술적인 정리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 그런 시각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객관성과 다양성 갖고 접근

## 자의적·호교적 이해 극복

강사)씨는 '미군정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분열'을 통해 "불교정화운동은 개인교에 유리한 종교정책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는 '정화운동시대의 종조 갈등 문제와 그 역사적 의미'에서 정화운동 기간 중 종조 문제가 첨예한 대결구도에 있었다는데 중점을 뒀다.

김 교수는 "일반 언론이 비구-보

과 사찰농지의 변동'을 통해 증명했다. 비구 중심의 한국불교에서 소외됐던 비구니에 대한 연구도 정리됐다. 황인규 교수(동국대)는 "정화운동 때 경무대 시위만 예를 들어도 비구인들이 선봉적 역할을 했다는 점, 정화대책에 비구보다 많은 수가 서명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교정화운동의 비구니 참여가 현대 비구니 불교계의 주제성과 정체성을

# 백의관음·지장보살 병립한 고려불화 발견

동국대 박물관장 정우택 교수 공개



정우택 교수가 공개한 <관음·지장보살 병립도>.

중국·일본에는 유례가 없는 고려시대 후반과 조선시대 초 한국에서만 그려진 관음·지장보살 병립도가 공개됐다. 일본 나고야 지역 개인 소장품에서 정우택 교수(동국대)가 발견한 불화는 고려시대(14세기) 것으로 추정되며, 세로 75.4cm 가로 44.7cm의 크기에 비단에 채색된 작품이다.

정 교수는 "불화에 원색위주의 채색법이 사용된 점, 연화당초원문이 중심문양인 점, 관음보살 백의의 전면에 금니로 상하좌우대칭의 연화원문이 그려진 점 등으로 볼 때 고려시대 14세기 후반 작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필, 보건의 흔적 없이 형상에 이질러짐도 없고, 뛰어난 색감을 보이는 등 불화 상태가 원형에 가깝게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이번에 공개된 '관음·지장보살 병립도'는 일본 서부시와 남법화사 불화에 이은 세 번째로 국보급 문화재에 해당한다. 15세기조 조선시대 작품인 일본 아미노원 금선묘에 있는 '관음·지장보살 병립도'와 도상이 거의 일치해, 금선묘의 불화가 이 불화를 모사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 교수는 "화불로 짐작되는 세구의 여래상이 표현된 현존 유일의 관음·지장보살 병립도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고려불화이다. 1476년 조성된 무위사 백의관음도의 원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 일본 유출 문화재 자발적 환수 돼

日 고마자와대, 동국대에 '불설아미타경' 반환

지난 1990년대 고속철도 선정과정에서 수조원을 들여 페제메(TGV)를 선정했던 것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페제메를 선정하면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결국 수조원을 들었지만 외규장각 도서는 돌려받지 못했다. 2005년 일제 때 약탈됐던 복관대첩비가 돌아왔고, 2006년에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47책이 93년 만에 반환됐다. 모두 슬픈 반환 요구와 노력 끝에 얻어진 성과로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줬다.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20개국 7만4434점에 달한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만 해도 1만477점에 이르는 가운데 일본에 있던 한 점이 자진반환 돼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에 모범적 선례가 됐다.

일본 고마자와 대학이 동국대에 반환한 문화재는 <불설아미타경> 한 권,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아미타경은 아미타불을 지극히 연승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다.

반환된 <불설아미타경>은 어떤 가치를 지녔을까? 반환 후 조사결과 한글 언해본인 목판본 경전은 전남 해남 대둔산(대흥사)에서 17세기초인 1623년경 판각



고마자와대가 동국대에 반환한 '불설아미타경'.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대둔산에서 1623년 판각된 <대방광불화엄경인부사 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의 간기에 공양승으로 표기된 참안 스님이 <불설아미타경>의 각수자로 나왔다는 점, 또 진언 부문의 한글 음토와 판구 등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동일연대로 추정된 것이다. 1564년(명종19년) 패엽사(頤葉寺)에서 판각한

<묘법연화경>의 것을 묘사한 아미타불 설법 변상도 역시 반환된 <불설아미타경>이 17세기경 작품임을 뒷받침한다.

어떻게 반환 됐을까? 동국대와 자매결연 중인 고마자와 대학은 1957년 타계한 후 에다 도시오(江田俊雄) 교수의 유족이 기증한 <불설아미타경>에서 중앙불교전문학교 도서관 장서인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 고마자와 대학은 중앙불교전문학교의 후신인 동국대에 반환의사를 전했고, 2월 19일 <불설아미타경>을 환수 받았다.

한편 반환된 <불설아미타경>은 국내에 남아 있지 않은 희귀자료로 임진왜란 직후 한글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신해철 과장(동국대도서관 불교학자료실)은 "반환된 <불설아미타경>은 임진왜란 직후 국어학 연구는 물론 불화연구 등 중세 불교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 불교학대사전 '가산불교대사람' 편찬 중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1990년 전통불교의 드높은 정신을 재인식해 연구·교화에 주력하고 장대한 불교전통의 현대적인 수용을 바탕으로 대중교화에 힘쓰고자 설립했다.

설립된 해 국립법정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나 1994년 현재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설립 이듬해인 1991년에는 가산학회 결성하고 가산학술상을 제정해 인재발수에 주력했다. 성본 스님(동국대), 정승석 교수(동국대) 등 저명한 학자들이 가산학술상을 시상했다. 전문학술지 <가산학보> 발간

을 비롯해 한국불교학전문강좌를 열어 불교학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꾀했다. 설립초기 국립법정이었던 법인명은 1994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으로 변경됐다. 한편, 법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 불교원전연구과정을 개설해 불교학 연구자의 외국어 습득에 큰 도움을 줬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성과라면 단연 1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중인 <가산불교대사람>이다. <가산불교대사람>은 완간되면 세계 최대 불교사전이 될 전망이다. 총 15권을 목표로 발간 중으로 2007년 제10권까지 발간됐다. (02)765-9602

조동섭 기자

# 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 교육과정

### 1. 49재 및 천도재 의식(6개월 과정)

- 천수바라 ● 사다라니바라
- 도량계 ● 다계작법

※ 49재 및 천도재의식 후 점안의식 강의 포함  
※ 매주 수요일 13시

### 2. 윤달대비 생전 예수재 의식

※ 매주 수요일 17시 30분

## 준비물

녹음기, 필기도구

## 개강일

2008년 3월 26일

### 3. 상주권공재 의식

※ 매주 수요일 16시

### 4. 매화역수 사주학과정(6개월 과정) (강사:도연스님)

※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 녹화, 촬영 절대 금지.

◆ 본광고는 연 2회 게재합니다.

# 송강 범음·범패 전문강원

●원장: 오송강(중요무형문화재 준 보유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미륵당 011-258-0314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 안내

## ◇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명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총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총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총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